

# 일본 국민의식 조사와 그 시사점: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The Meaning of the Survey of Japanese Value Orientations*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1. 들어가며

한 나라의 국민들의 생활환경 및 의식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속에서 생활환경 및 의식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향후 나타날 의식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해 사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해외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1973년부터 민간기업인 NHK의 방송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일본 국민들의 생활변화와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이에 대한 영향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일본 의식조사」라는 조사를 통해 일본 국민의 의식변화를 추적 조사해 오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주요 통계자료에도 수록하고 있다. 올해인 2013년에도 동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40여년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 일본인의 의식과 가치관 및 생활양식이 어떻게 변화해 오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일본 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는 물론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소 어디에서도 일본의 NHK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조사하고 연구한 자료가 부족하며, 또한 일본 국민의식조사에 대한 내용이 이미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 소개되었음에도 여전히 관련 연구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2000년대 들어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주기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은 그나마 의미가 있지만, 조사년한이 10여년에 불과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측면에서 지난 3년간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국민들의 보건복지에 대한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이제 시작이지만 일본의 국민의식조사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다양한 조사문항들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파악하면 현재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문제, 자살 증가의 원인 등을 파악할 때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고에서는 위와 같은 국민의식 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2013년 일본의 국민의식조사가 진행되기 이전 지금까지 일본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최근 자료와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조사에 대한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일본 국민의식 조사 주요 내용

### 1) 일본 국민의식 조사 개요

일본 국민의식 조사는 일본의 국영방송인 NHK에서 1973년 이후 매 5년마다 일본인의 태도와 사회·정치·경제·일상생활에 관련한 견해의 장기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최초 조사가 설계될 무렵,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유형의 다양화, 인구변화에 따른 세대간 단절, 그리고 가치관의 다원화 등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환기되면서 조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은 1973년 당시 구체적인 연구분야에 대한 수요가 NHK 내에서 실제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와 만나 실현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급격한 산업

화 및 정보화의 경향과 최근의 오랜 경기침체 등에 의해 일본국민들의 의식변화와 만족도를 파악할 필요가 강화되고 있다.

일본 국민의식 조사는 각 조사시점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하여 동일한 설문문항과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섯 가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데, 첫째 일본 국민의식 조사를 위한 주요 조사영역을 모두 포괄하고, 둘째 일본인 태도 특성의 체계적 이해를 도모하며, 셋째 장기간에 걸쳐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도 변수와, 넷째,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태도 변수에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통계처리가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셋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칙에 기반하여 조사표에 시대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자 NHK 내 연구자 및 관련 분야 교수들이 모여 1993년과 2003년에 각각 조사표의 개선을 위해 진행한 검토회의에서 필요시 일부 문항을 추가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매 회기마다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16세 이상 일본국민 약 54백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약 450명의 계약직 조사원이 전국의 조사대상을 개별 방문하여 조사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조사완료기준은 일반적으로 3~4천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조사된 일본인 국민의식 조사의 결과는 NHK뉴스 및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발표하고 있고, 정부의 「국민생활백서」에 일부 내용이 수록되고 있다. 그 외 조사결과를 출판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원자료는 동경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SSJDA(the Social Science Japan Data Archive)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의식조사인 국제사회조사프로젝트(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ject)와 협력하고 있고, ISSP의 일환인 오사카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JGSS(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 일본일반사회조사)와는 별도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 2) 일본 국민의식 조사 내용

일본 국민의식 조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크게 기본적 가치, 경제·사회·문화, 가족·남녀관계, 커뮤니케이션, 정치, 국제관계, 속성의 7개 범주이고 각각은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초 조사부터 2008년 현재까지 완료된 8차 조사까지 계속 유지된 질문 문항은 58개이고, 그 외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문항들이 수정·보완되어 1, 2차 조사에서는 66개 문항을, 3, 4차 조사에서는 60개 문항을, 5, 6차 조사에서는 68개 문항을, 그리고 7차와 8차 조사에서는 69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조사시점간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하여 조사표

의 내용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1983년에 대중매체의 문항을 추가하고, 1993년에는 결혼관과 국제관계의 문항을, 그리고 2003년에는 대중매체 문항에 인터넷과 휴대폰을 추가하고, 국제관계 범주에 외국인과의 접촉 및 교류 경험 문항을 추가하였다.

## 3. 일본 국민의식 조사 주요 결과

### 1) 기본적 가치

일본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생활 목표 추이는 다소의 변화를 보인다. 애(愛)지향을 생활의 목표로 하는 비중이 1973년에는 30.5%에서 2008년에는 45.1%으로 증가한 반면, 정(正)지향은 1973년의 13.8%에서 2008년에는 5.6%로, 이(利)지향은 1973년의 32.5%에서 2008년에는 23.5%로 감소하였다.

표 1. 일본 국민의식 조사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기본적 가치	생활목표, 생활충실수단, 권위 대 평등, 능력 대 정서, 이상적 인간상
경제·사회·문화	소비·저축, 인간관계(혈연·지연·직장·친구), 이상적 직업, 근로와 여가, 여가(현재·미래), 신앙·종교
가족·남녀관계	가정, 부부 및 부자관계, 노후준비, 남녀교육에의 성평등, 성의식, 결혼관
커뮤니케이션	대중매체
정치	지식, 선거·데모·여론조사, 결사·투쟁성(직정·지역·정치), 정치활동, 지지정당, 정치문제, 천황에 대한 인식, 내셔널리즘(일본·일본인에 대한 애착심·우월감)
국제관계	선호하는 국가, 외국인과의 접촉 및 교류 경험
속성	생활만족도, 라이프스타일, 학력, 직업, 조사관련(면접시간 등)

자료: Kono Kei, Takahashi Koichi, and Hara Miwako(2010). The Survey of Japanese Value Orientation: Analysis of Trends over Thirty-Five Years. NHK Broadcasting Studies. 8: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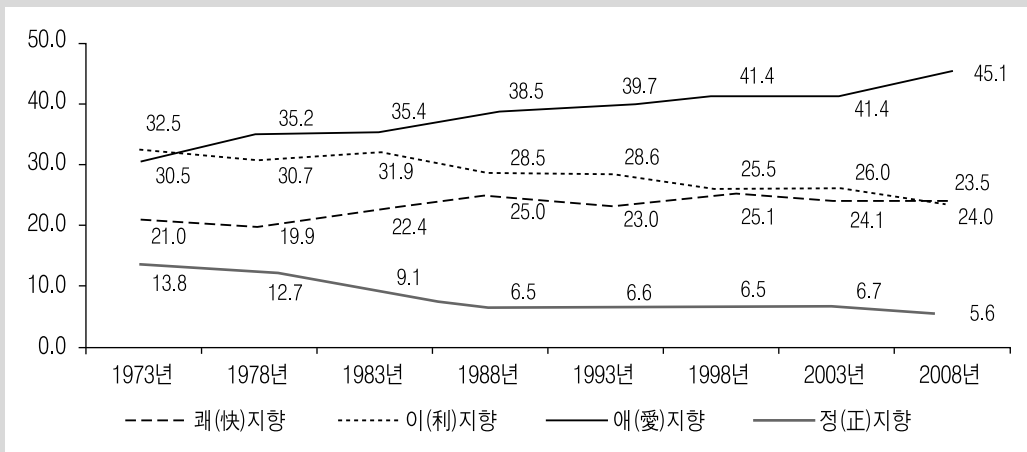
일본 국민의식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본인의 이상적인 생활상은 인간상, 가정상, 그리고 직업으로 구분된다. 우선 이상적 인간상을 보면 1973년 이후 다소의 변화를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교양형(교양이 있고 마음이 풍요로운 인간)이 36~40% 범위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

상으로 나타났고, 규율형(질서를 지키는 규율이 바른 인간)이 21~30%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그 뒤를 이어왔다.

반면, 이상적 가정상은 다소 변화된 추이를 보인다. 즉, 조사가 최초로 시행된 1973년에는 성역할분담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

그림 1. 생활목표에 대한 일본 국민의식조사 결과

(단위: %)



주: 쾌(快)지향(그날그날을 자유롭게 즐겁게 보낸다), 이(利)지향(확실히 계획을 세워서 풍요로운 생활을 만든다), 애(愛)지향(가까운 사람들과 다정한 나날을 보낸다), 정(正)지향(모두와 힘을 합쳐 세상을 좋게 한다)  
 자료: NHK放送文化研究所(2010: 9). 現代日本人の意識構造(第七版), NHK放送文化研究所, 수정 보완.

표 2. 이상적 인간상에 대한 일본 국민의식조사 결과

(단위: %)

구분	1973년	1978년	1983년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2008년
규율형	21.5	23.7	30.0	23.2	21.2	22.3	26.7	29.2
권리형	16.8	16.4	16.4	17.0	19.8	19.7	18.7	17.5
실용형	22.2	21.0	18.8	18.1	17.8	18.2	16.8	14.4
교양형	36.7	36.9	33.4	40.0	39.0	38.7	36.3	36.6
그 외	0.0	0.1	0.4	0.2	0.3	0.3	0.2	0.4
무응답	2.8	1.9	1.1	1.5	1.8	0.8	1.3	1.8

자료: NHK放送文化研究所(2010: 2). 現代日本人の意識構造(第七版), NHK放送文化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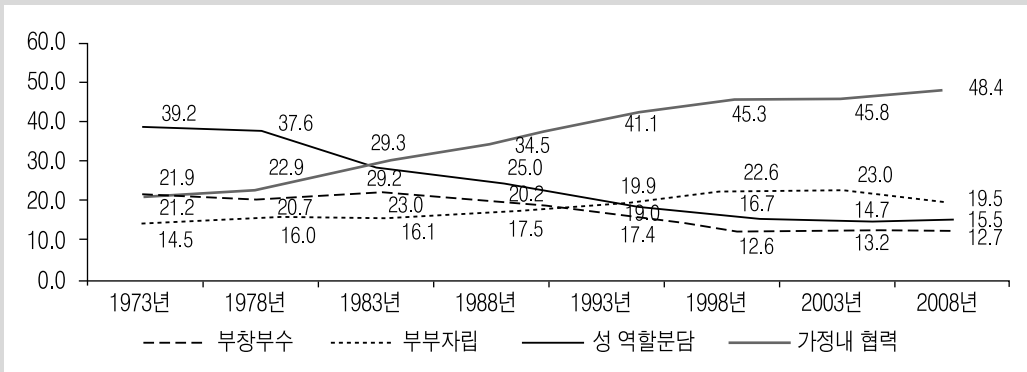
을 차지하였으나 차츰 그 정도가 감소하여 2008년에는 가정내협력(아빠)이 약 50%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일본 내 이상적 가정상이 상당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인의 이상적 직업상은 1978년까지는 건

강을 해칠 염려가 없는 일(38~47%)이었으나, 이후 동료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38~44%)로 순위가 변동되었다. 그 외에는 실업의 염려가 없는 일(20~28%),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19~24%),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12~22%)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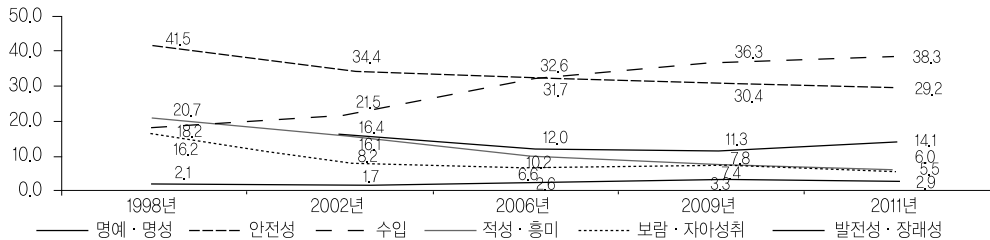
그림 2. 이상적 가정상에 대한 일본 국민의식조사 결과

(단위: %)



주: 부창부수(아버지는 한 가정의 주인으로서 위엄을 가지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힘을 북돋우며 정성을 다함), 부부자립(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신의 일이나 취미를 가지고 있고 각각 열중), 성역할분담(아버지는 바깥 일에 힘쓰고, 어머니는 맡겨진 가정을 확실히 지킴), 가정내협력(아버지는 이것저것 가정일에 신경을 쓰고, 어머니도 따뜻한 가정만들기에 전념)  
 자료: NHK放送文化研究所(2010: 11), 現代日本人の意識構造(第七版), NHK放送文化研究所, 수정 보완.

1) 반면 우리나라에서 1998년부터 2011년까지 비정기적으로 조사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에 대한 욕구는 1998년 41.5%에서 2011년 29.2%로, 보람 및 자아성취에 대한 욕구는 16.2%에서 5.5%로, 그리고 발전성 및 장래성에 대한 욕구는 20.7%에서 6.0%로 하락하였으나, 수입에 대한 욕구는 18.2%에서 38.3%로 증가하였음. 이는 동료와의 관계와 건강에 대한 염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일본 국민의식 조사 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양상으로 보임.



주: 1) 2011년 조사대상은 13세 이상, 그 외 연도의 조사는 15세 이상을 조사대상으로 함  
 2) 전체에서 기타와 무응답의 비중을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통계청홈페이지(KOSIS).

표 3. 이상적 직업에 대한 일본 국민의식조사 결과(1순위+2순위)

(단위: %)

구분	1973년	1978년	1983년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2008년
시간	8.3	6.8	6.8	7.3	9.4	8.3	6.7	7.3
실업	20.2	28.6	27.0	23.7	21.5	26.2	29.3	27.3
건강	46.5	38.6	37.9	36.1	36.4	33.9	31.4	33.7
수입	19.2	19.6	22.0	23.2	23.9	20.2	22.2	19.7
동료	36.6	36.8	38.6	42.5	43.8	43.5	41.3	42.5
책임	4.5	5.5	6.4	7.0	6.2	5.6	5.6	5.1
독립	17.3	15.7	14.0	12.7	9.1	10.0	8.0	6.4
전문	26.0	28.4	29.9	30.2	28.1	30.9	31.5	29.2
명성	0.4	0.7	0.8	0.5	0.8	0.3	0.6	0.6
공헌	15.6	13.4	12.8	12.2	16.0	16.7	19.1	21.6
그외	0.1	0.1	0.2	0.2	0.1	0.1	0.1	0.0
무응답	3.2	3.4	2.4	2.8	2.8	2.8	2.6	4.2

주: 시간(일하는 시간이 짧은 일), 실업(실업의 염려가 없는 일), 건강(건강을 해칠 염려가 없는 일), 수입(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 동료(동료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 책임(책임자로서 지휘를 발휘할 수 있는 일), 독립(독립해서 남에게 신경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전문(전문지식이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일), 명성(사회에서 인기있는 일), 공헌(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  
 자료: NHK放送文化研究所(2010: 16). 現代日本人の意識構造(第七版), NHK放送文化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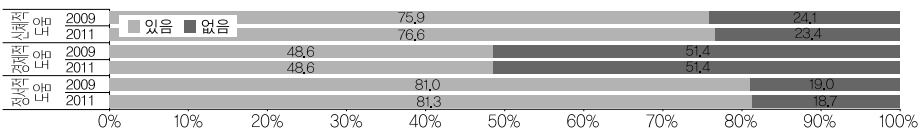
## 2) 생활방식 및 인간관계

일본인이 자신들의 생활을 충실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응답한 비율의 편차에는 차이가 있으나, 35년의 조사기간을 걸쳐 건강한 신체(75~79%), 경제력(26~30%), 보람있는 일이나 활동(23~30%), 다정한 교제(28~34%), 그리고 풍부한 취미(41~56%)의 순위를 유지하였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

로 알려져 있는 주변인물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일본인의 의식조사 결과 추이는 다음과 같다. 최초 조사년도인 1973년에는 친척 및 직장 동료와의 전면적 교제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선호한 반면, 가장 최근 조사년도인 2008년에는 부분적 교제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 수준 증가하였고, 형식적 교제에 대한 선호도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형식적 교제와 부분적 교제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전면적 교제는 상당 수준 감소하였다.<sup>2)</sup>

2) 우리나라의 사회조사에서 조사한 사회적 관계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82%가 신체적 및 정서적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고 하였으나,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신체적 도움(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경제적 도움(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정서적 도움(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료: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통계청홈페이지(KOSIS).

표 4. 생활충실수단에 대한 일본 국민의식조사 결과

(단위: %)

구분		1973년	1978년	1983년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2008년
풍부한 취미	제1위	1.3	1.6	1.9	2.9	3.2	3.7	3.6	4.3
	제2위	4.9	6.1	6.0	8.4	9.3	9.9	10.3	9.4
	제3위	10.7	11.9	12.2	14.7	15.8	16.9	15.6	15.8
	제4위	23.1	23.7	22.4	23.6	25.4	24.8	25.8	25.5
	제5위	55.5	52.0	53.7	48.0	43.8	41.7	42.6	41.7
	무응답	4.6	4.6	3.8	2.4	2.5	3.0	2.0	3.4
보람있는 일이나 활동	제1위	9.0	8.8	8.0	7.8	7.2	7.3	8.1	6.3
	제2위	26.7	27.0	26.9	24.8	24.1	21.7	21.6	21.9
	제3위	29.0	29.1	29.6	28.3	27.4	26.0	26.7	23.8
	제4위	19.8	18.5	19.1	20.3	20.2	21.3	21.4	22.1
	제5위	11.5	12.4	12.6	16.3	8.2	21.0	19.9	21.8
	무응답	3.9	4.3	3.8	2.4	2.8	2.7	2.4	4.0
경제력	제1위	6.8	7.4	8.5	7.0	8.9	7.6	9.6	9.2
	제2위	35.3	33.8	32.9	33.0	31.5	32.9	34.4	32.5
	제3위	26.0	24.4	23.8	25.0	24.3	24.4	23.5	24.2
	제4위	16.7	17.4	17.9	18.1	17.7	17.7	15.6	16.6
	제5위	11.7	13.1	13.5	14.4	15.2	14.7	14.8	14.1
	무응답	3.6	3.9	3.4	2.5	2.3	2.6	2.1	3.4
다정한 교제	제1위	3.7	4.2	3.9	4.3	4.6	4.6	4.7	5.2
	제2위	18.9	19.5	20.1	20.0	20.9	21.6	18.8	21.4
	제3위	25.7	24.9	26.4	24.9	24.9	24.7	25.7	26.6
	제4위	33.4	32.6	33.3	32.4	30.3	29.4	31.2	28.2
	제5위	15.4	15.9	13.8	16.3	17.5	17.6	18.0	15.9
	무응답	2.9	2.8	2.5	2.1	1.8	2.1	1.6	2.7
건강한 신체	제1위	78.3	77.2	77.3	77.1	75.4	75.5	73.3	74.1
	제2위	12.3	11.8	13.1	12.5	13.1	12.4	13.7	12.9
	제3위	5.1	6.0	5.2	4.9	5.5	5.7	6.7	6.5
	제4위	2.1	2.5	2.6	2.8	3.3	3.4	3.4	3.4
	제5위	0.8	1.3	1.3	1.9	1.9	1.5	2.1	2.0
	무응답	1.3	1.2	0.3	0.9	0.8	1.4	0.8	1.2

자료: NHK放送文化研究所(2010: 10), 現代日本人の意識構造(第七版), NHK放送文化研究所.

표 5. 인간관계에 대한 일본 국민의식조사 결과

(단위: %)

구분		1973년	1978년	1983년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2008년
친척 <sup>1)</sup>	형식적 교제	8.4	8.6	9.9	12.5	15.8	17.3	20.0	21.6
	부분적 교제	39.7	40.1	45.2	45.3	46.5	46.4	46.8	42.8
	전면적 교제	51.2	50.5	44.3	41.2	36.6	35.6	32.2	34.8
	그 외	0.1	0.1	0.2	0.1	0.3	0.1	0.2	0.1
	무응답	0.7	0.7	0.3	0.8	0.8	0.7	0.9	0.8
직장 <sup>2)</sup>	형식적 만남	11.3	10.4	13.6	15.1	17.8	20.3	21.7	24.1
	부분적 만남	26.4	31.4	32.3	37.6	38.8	38.9	37.5	34.3
	전면적 만남	59.4	55.3	52.3	44.6	40.4	38.3	37.8	38.9
	그 외	0.1	0.0	0.0	0.1	0.2	0.1	0.1	0.1
	무응답	2.8	3.0	1.8	2.5	2.9	2.4	2.9	2.6
이웃 <sup>3)</sup>	형식적 교제	15.1	15.1	19.6	19.2	19.8	23.2	25.2	25.6
	부분적 교제	49.8	52.5	47.5	53.4	54.2	53.3	54.0	53.7
	전면적 교제	34.5	31.9	32.4	26.8	24.9	22.8	19.6	19.4
	그 외	0.0	0.0	0.0	0.0	0.1	0.1	0.0	0.1
	무응답	0.5	0.5	0.4	0.6	1.1	0.6	1.1	1.3

주: 1) 형식적 교제(일단의 예를 갖추는 정도의 교제), 부분적 교제(부담없이 왕래할 수 있을 정도의 교제), 전면적 교제(여러 가지로 상담하거나 서로 돕는 정도의 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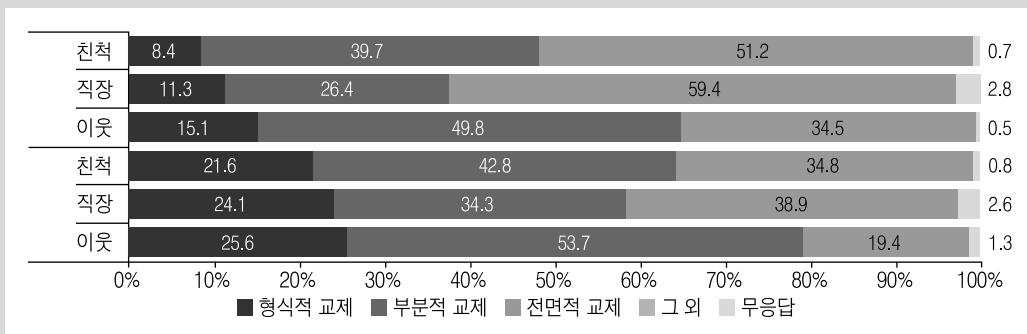
2) 형식적 만남(일에 직접 관계되는 범위 내에서의 교제), 부분적 만남(일이 끝나고 나서도 이야기를 나누거나 놀 수 있는 교제), 전면적 만남(여러모로 의논하거나 서로 도울 수 있는 교제)

3) 형식적 교제(만났을 때 인사하는 정도의 교제), 부분적 교제(그다지 거북하지 않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교제), 전면적 교제(서로 상담하거나 도울 수 있는 정도의 교제)

자료: NHK放送文化研究所(2010: 11-22). 現代日本人の意識構造(第七版), NHK放送文化研究所.

그림 3. 인간관계에 대한 일본 국민의식조사 결과 추이

(단위: %)



자료: NHK放送文化研究所(2010: 11-22). 現代日本人の意識構造(第七版), NHK放送文化研究所, 수정 보완.



### 3) 생활만족도

일본 국민들의 생활전체에 대한 만족도 변화를 보면, 국민들의 생활만족도가 시간이 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73년 만족의 비율이 20.7%에서 2008년 27.6%로 증가하였으며, 약간만족 역시 56.8%에서 59.1%로 늘어나고 있다. 전체적 만족도에서 1973년 77.5%에서 2008년 86.7%로 늘어났지만, 이러한 현상은 1978년 85.1%로 늘어난 이후 큰 변화없이 85~87%내에서 변하고 있다는 점은 조사초기에 비해서 생활만족도는 초기 증가한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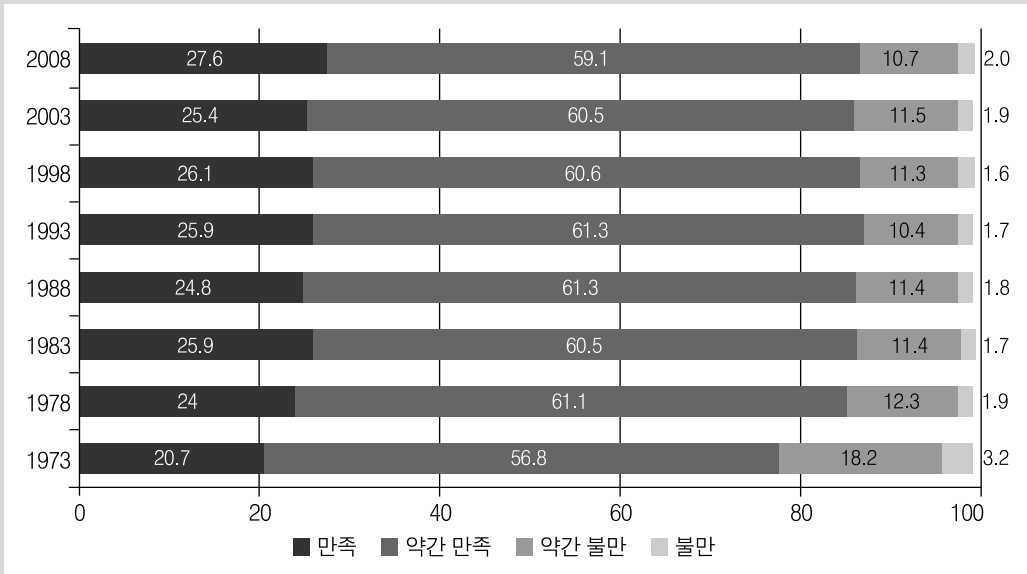
생활만족도를 네가지 부문별(의식주, 지역환경, 삶의 보람, 인간관계)로 살펴보면, 지난 시기

일본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의식주에 대한 만족도는 많이 증가하였다. 1973년 58.5%에서 2008년에는 72.2%로 증가하였지만 직전 조사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형태이다. 지역환경에 대한 만족도 역시 조사초기에 비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80.0%까지 늘어났다. 네가지 부문중에서 유일하게 계속적으로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는 설문이다. 그밖에 삶의 보람과 인간관계의 경우 조사초기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지만, 그 수준은 오래기간 큰 변화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sup>9)</sup>.

우리나라와 더불어 일본은 빠른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노후준비가 최근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되는 것과 같이 일본 역시 노후준비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지

그림 4. 생활전체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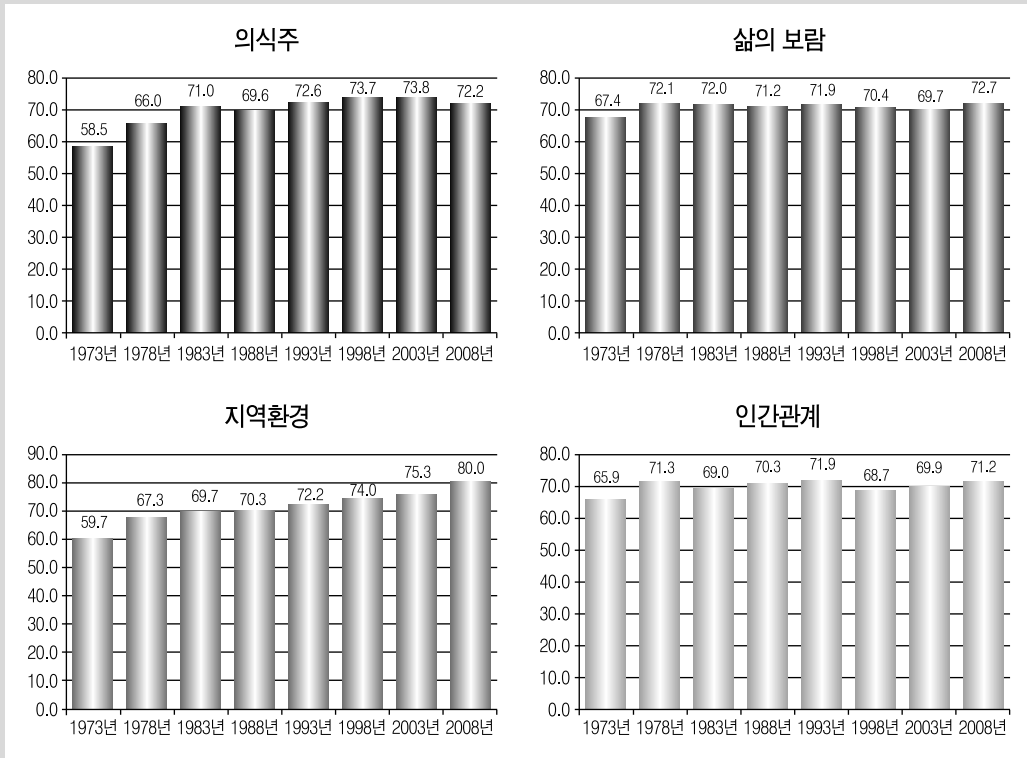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NHK放送文化研究所(2010: 166-172). 現代日本人の意識構造(第七版), NHK放送文化研究所, 수정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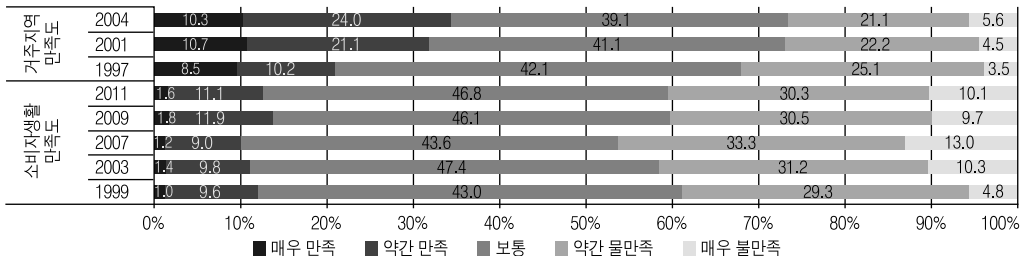
그림 5. 부문별 생활 만족도

(단위: %)



자료: NHK放送文化研究所(2010: 166-172), 現代日本人の意識構造(第七版), NHK放送文化研究所, 수정 보완.

3) 우리나라 사회조사에서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보다는 부문별 주관적 만족도를 살펴보고 있음. 예를 들어, 가족관계, 소득 및 소비 지출, 거주지역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음. 여기서는 항목별 만족도중 지역환경(→거주지역), 의식주(→소비생활)의 두가지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음. 지역환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일본사람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시간이 변함에 따라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2004년까지만 조사되어 현재의 상황은 파악이 어려움. 소비지출만족도에서는 만족하기 보다는 불만족한 비율이 높았으며, 2007년을 최고로 해서 다소 감소하지만 2011년도 만족보다는 불만족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일본인들의 의식주 만족도에 비해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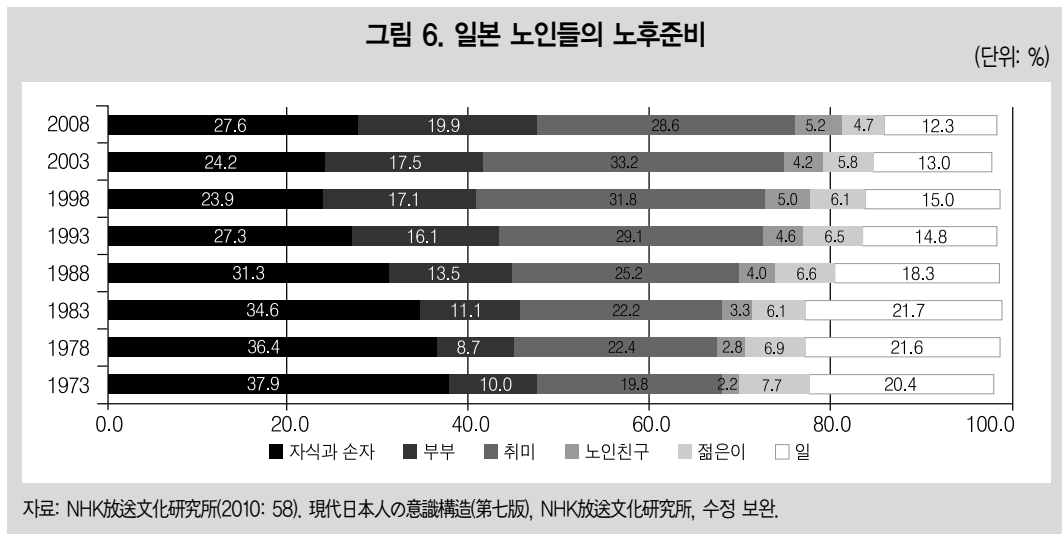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통계청홈페이지(KOSIS).

난 시기 일본 사람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사항을 보면 1973년에는 주로 자식과 손자에 의존하는 비율이 37.9%로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수단이였다면 이후 동 비율을 감소하여 2003년에는 24.2%까지 감소하였다. 하지만 2008년에는 다시 27.6%로 증가하였으며, 1973년 일을 통한 노후준비가 20.4%로 두 번째 순위였다면 2008년에는 12.3%까지 감소하고 있다. 대신하여 취미와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동 비율은 2008년에는 가장 높은 28.6%까지 증가하였다. 이외에 노인 부부가 함께 노후준비를 하는 비중도 과거에 비해서는 두배 정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sup>4)</sup>.

#### 4. 마무리

지금까지 일본의 국민의식조사와 우리나라



4) 우리나라 사회조사에서도 2002년부터 노후준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국민의식조사와는 다소 다른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를 간접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2002년 51.4%에서 2011년 65.7%로 증가하였으며, 여기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노후준비를 못하는 경우도 2011년 34.3%이었으며, 가장 높은 비율은 준비능력 부족과 생각할 여유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단위: %)

구분	준비하고(되) 있음	준비하고(되) 있지 않음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음	앞으로 준비할 계획	준비능력 부족	자녀에게 의탁
2011년	65.7	34.3	19.4	31.9	37.7	11.1
2009년	66.3	33.7	16.6	32.6	38.9	12.0
2007년	61.8	38.2	19.8	34.9	32.6	12.6
2005년	52.3	47.7	32.7	32.9	25.0	9.3
2002년	51.4	48.6	17.6	15.5	15.4	-

자료: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통계청홈페이지(KOSIS).

의 사회조사통계를 통해 일본 국민들과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일본은 지난 시기 경제력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으로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국민들의 의식변화도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 양태는 개인에 대한 이익(利)을 추구하는 데서 점진적으로 愛(사랑)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2000년대 분배가 중요시되는 사회형태로 변모하면서 나눔 및 기부문화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이해된다. 직업적 이상향에서는 건강 또는 동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에서 동료들과 관계가 좀 더 중요시 되고, 이외에 사회적 공헌 또는 실업에 대한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설문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불안이 지속되면서 동료 또는 사회적 공헌보다는 좀 더 수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삶에 대한 만족에서 일본 국민들은 꾸준히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문별 만족도에서도 의식주와 지역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노후준비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이외에는 크게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며, 능력부족을 큰 이유로 들고 있다. 반면에 일본 국민들은 조사 초기 높았던 자녀에 대한 의존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취미와 부부간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노후에 일을 하고자 하는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우리나라 노인들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측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일본의 국민의식조사와 우리나라의 사회조사를 비교하고 일본 국민들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차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우리나라도 국민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소득과 지출이 증가하고 사회적 안정성이 높아질 경우, 일본 국민들이 개인보다는 사회적 이익에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성에 중심을 두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방향(나눔 확산, 성장보다는 분배, 복지문제에 대한 관심, 노후 준비 등)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며 일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비교의 한계는 조사내용의 차이로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간의 의식을 정확히 비교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오랜 기간 동일문항을 통해 조사가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통계청 사회조사를 통해 비슷한 유형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조사문항이 변경되고, 시점도 2000년대 이후에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국민의식 조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혹은 국민의식과 관련하여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사회조사가 진행됨으로서 횡단적 분석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반영한 의식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일관성 있는 조사문항을 통해 주기적으로 사회조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식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문항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국립**